

#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강만익\*\*

- I. 머리말
- II. 탐라목장의 운영
- III. 탐라목장의 영향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고려 말 원 제국이 탐라(제주)에 설치했던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에 대해 조명한 것으로, 원 제국은 1273년 고려군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삼별초 군대를 진압했다. 그 후 탐라를 직할지로 삼은 원 제국은 1276년 8월 군마를 생산하기 위해 탐라 목장을 설치했다. 이 목장은 제주 地域史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이었다. 원 제국은 탐라의 다루가치로 임명된 타라치에게 말 160필과 목축 전문가인 하치들을 보내 탐라목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목장은 1276년에 제주 동부지역의 수산평 그리고 1277년에 서부지역의 차귀평에 입지했다. 원 제국의 탐라목장 설치에 제주지역 목초지에 대한 정복과 지배의 여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원 제국은 제주의 동부지역을 東아막, 서부지역을 西아막으로 삼아 이곳의 목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아막은 넓게는 道·郡 등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좁

\* 이 글은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2016.3.26.)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토론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게는 목장을 관리하는 본부의 역할을 했으며, 동·서 아막 내에는 몽골인들의 전통 집인 게르와 城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목장이 설치된 초기에 원 제국은 일본 정벌을 앞두고 있어 탐라에서 말을 반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95년에야 원 조정에서는 관리를 보내 탐라에서 말을 반출해갔다. 이것은 탐라목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즉, 목장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1296년 원 제국은 탐라목장을 전담해 운영할 단사관[자르구치]을 파견했다.

1300년 원 제국은 사망한 황후의 마구간 말을 탐라목장에 방목했고, 탐라총관부를 일시적으로 부활시키는 등 목장운영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1350년대에 들어와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전개하고, 명나라가 고려에 탐라 말 2,000필을 요구함에 따라 하치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했다. 이것은 ‘목호의 난’으로 알려지며, 이에 따라 공민왕은 탐라에서 원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최영 장군에게 탐라의 목호세력에 대한 정벌을 명령했다. 그 결과 목호군이 1374년 최영 군대에 의해 진압되면서 목호세력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몽골인이 운영했던 몽골식 탐라목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탐라목장이 운영되는 과정에 몽골인 거주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몽골식 목축경관이 등장했고 몽골의 목축문화가 탐라사회로 전파되었다. 이 목장에 대한 탐색 결과, 조선시대 제주도에 설치되었던 국영목장과 산마장 등은 일정 부분 제국이 운영했던 탐라목장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탐라의 목축 방식 역시 원 제국의 하치들이 탐라에 전파했던 목축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삼별초, 쿠빌라이, 타라치, 탐라목장, 수산평, 아막, 탐라총관부, 다루가치, 단사관, 하치, 목호의 난, 몽골인 마을.

## I. 머리말

고려 말 탐라를 직할지로 삼았던 원 제국은 13세기말부터 100년 가까이 다양한 그들의 흔적을 제주도에 남겨놓았다. 700여년 전 제주에 설치되었던 ‘탐라목장’ 역시 원제국이 남긴 대표적인 역사문화 유산에 해당한다.

그러면 탐라목장은 언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그리고 탐라목장이 운영되며 제주도에 남긴 흔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연구목적에 답하기 위해 탐라목장의 변천과정을 설치기(1273~1277), 성장기(1278~1351), 쇠퇴기(1352~1392)로 구분했다.

탐라목장에 대해서는 고창석(1985), 진축삼(1989), 남도영(2003), 김일우(2005), 에르데니 바타르(2006) 등이 연구를 진행했다. 고창석은 「원대의 제주도 목장」에서 몽골의 탐라목장이 1276년(충렬왕 2년)부터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 수산평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몽골식 목축방법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밝혔다.<sup>1)</sup> 진축삼은 「몽원과 제주도」에서 목호들은 고려인(탐라인 포함)들의 탐라목장 근접을 막았으며, 목장은 목호들의 거주지가 되었음을 강조했다.<sup>2)</sup> 남도영은 阿幕을 목장관할을 위한 행정구획인 牧區인 동시에 마정을 담당했던 牧衛[官衛]로 해석했다.<sup>3)</sup>

김일우는 「고려시대 탐라지역의 우마사육」을 통해 탐라목장이 하치[哈赤]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아막은 월동뿐만 아니라 거세, 우마 낙인 등과 같은 탐라목축의 제반사항을 관할하는 본부로 기능했음을 밝혔다.<sup>4)</sup> 에르데니 바타르는 원 제국의 황실목장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탐라목장을 접근했다.<sup>5)</sup>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했다. 『원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탐라지』 등의 사료와 조선시대 제주도 관련 고지도를 활용해 탐라목장의 변천과정을 탐색했다. 문헌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동아막 지역 내의 수산평(수산리)과 서아막 지역 내의 차귀평(고산리), 원으로 공물과 말을 반출시켰다고 알려진 포구 그리고 목장 운영에 참여했을 몽골인들이 남긴 역사유산에 대한 답사를 실시했다.

1) 고창석, 「원대의 제주도 목장」, 『제주사학』 창간호, 1985, 5-16쪽.

2) 진축삼, 「몽원과 제주마」, 『탐라문화』 제8호, 탐라문화연구소, 1989, 151쪽.

3)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154-184쪽.

4)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78호, 한국사학회, 2005, 100쪽.

5) 에르데니 바타르, 「원·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II. 탐라목장의 운영

### 1. 설치기(1273-1277)

원 제국이 탐라에 목장을 설치한 것은 탐라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자연환경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즉, 원 제국은 탐라가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로 상에 위치하여 일본과 남송을 왕래하는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라는<sup>6)</sup> 지정학적 위치와 원 제국에 비해 겨울철이 춥지 않으며, 탐라의 곳곳에 초지가 발달해있음을 인식해 목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제국의 탐라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동중국해에 대한 해양 전선 관리정책과 관련성이 있다.<sup>7)</sup> 다시 말하면, 원 제국은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원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중국해에 대한 전략적 지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해역에는 원제국의 남부지역과 탐라, 일본을 연결하는 쿠로시오 난류가 흘러 선박운항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원 제국에서 남방항로를 이용하면 출발한지 3일 만에 탐라에 도착하고, 탐라를 출발해 3일 만에 일본 海口에 도착하는 것으로<sup>8)</sup> 알려졌다. 『고려사』에서는 제주가 ‘해외의 巨鎮’이어서 송나라 상인과 왜인들이 수시로 내왕하는 곳으로<sup>9)</sup>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탐라는 일본과 송나라 사이에 왕래하는 선박들의 피항지 또는 표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탐라목장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설치되었을까? 원종 14년(1273), 제주도에서 주둔했던 김통정의 삼별초군을 무력진압한 원제국은 제주도에 17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sup>10)</sup> ‘제주’를 ‘탐라’로 환원시켜 고려로부터 분리해 지배하에 두었다. 그리하여 원 제국은 탐라를 일본과 남송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뿐만 아니라 고려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지렛대로

6) 고창석, 「러·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 17호, 제주대학교, 1984, 371쪽.

7) 에르데니 바타르, 앞의 논문, 2006, 83-88쪽.

8) 배숙희, 「원대 경원지역과 남방항로」, 『중국학보』 제65집, 2012, 197쪽.

9) 『고려사』 원종 원년(1260) 2월 3일(경자) : “以濟州副使 判禮賓省事羅得璜 兼防護使朝議濟州海外巨鎮 宋商島倭無時往來…”

10) 『원사』 권208, 탐라전.



활용하려 했다.<sup>11)</sup>

원 제국의 세조는 1276년 8월 탐라 다루가치로 임명된 타라치[塔刺赤]에게 말 160필과 이를 관리할 하치들을 보내며 목장을 운영하도록 했다.<sup>12)</sup> 원의 탐라목장 설치의 제주지역 목초지에 대한 정복과 지배의 여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면 원 제국이 탐라에 목마장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첫째, 탐라에서는 방성[말을 나타내는 신의 별자리]을 볼 수 있어 말 생산에 유리하다고 믿었으며, 둘째, 방목시킨 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없었고, 초지가 풍부했으며, 겨울철이 온화하여 4계절 내내 말을 방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몽골은 장기적으로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루트 상에 위치한 탐라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몽골은 동남해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탐라를 동아시아 해상 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지역으로 인식하여<sup>13)</sup> 탐라를 오래 지배하려는 저의 하에 목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276년 탐라로 보낸 말 160필과 양은 어디에서 공급되었을까? 이에 대해 몽골 동남부 고산초원에 위치한 ‘다리강가’ 지역을 공급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할만 하다.<sup>14)</sup> 즉, 제주도에 온 몽골 말과 양의 고향은 다리강가 지역이라는 것이다.<sup>15)</sup>

탐라목장이 처음 설치된 곳은 어디인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은 탐라목장의 출발지로 현재 성산읍 수산마을(수산 2리) 초지대에 위치한

11)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연구』, 지식산업사, 2014, 312-313쪽.

12)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2년(1276) 8월조 : “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以馬百六十匹來牧”;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1276) 8월조.

13) 조 원, 「쿠빌라이의 동아시아 해상진출과 탐라」,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98쪽.

14) 주채혁, 『순록치기가 본 조선·고구려·원제국』, 해안, 2007, 259-260쪽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원제국비사』 윤독회의 토론과정에서 원제국 세계간국기에 동원제국 다리강가 지역이 중심 목마장이었고, 고려의 탐라섬은 그 한 분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국의 牧戶들이 필요에 따라 다리강가로 호출, 소집되기도 했고 다리강가의 실링복덕(화산)은 칭기스칸이 출정 전에 전마와 원제국 경기병을 점검하고 점호한 곳이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15) 박원길, 『배반의 땅, 서약의 호수』, 민속원, 2008, 45쪽.

‘水山坪’을 들고 있다. 이곳은 수산진성의 서남쪽에 해당되었다.<sup>16)</sup> 수산 평 목장을 포함하여 충렬왕 2년(1276) 동아막이 설치되고, 충렬왕 3년(1277)에는 서아막이 현재의 한경면 고산리 일대인 차귀평 일대에 입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원 제국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탐라목장을 동부와 서부 지대에 분화시켜 설치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阿幕은 部隊·단체, 道·州·郡을 뜻하는 몽골어 아이막[aimaq]에 해당하며,<sup>17)</sup> 몽골지배 후 고려의 관직인 愛馬로 계승되었다.<sup>18)</sup>

이렇게 성립된 탐라목장은 고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치외법권적인 존재였으며,<sup>19)</sup> 원제국이 설치한 14개 왕실목장 중 하나였다.<sup>20)</sup> 그리하여 “한번 胡元에서 목장을 주관한 후, 준마들이 해마다 황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sup>21)</sup>

탐라목장 설치를 주도한 인물은 누구인가? 1273년 원제국은 탐라에 耽羅國招討司를 두었다가 1275년에 耽羅(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를 설치하면서 다루가치를 파견했다. 이것은 본래 중앙이나 지방의 크고 작은 각종 관청에 두었던 관직 명칭으로, 관할지역 내에서 최고 결정권을 가진 행정감독관이었다.<sup>22)</sup> 이 목장 설치기에 임명된 다루가치로는 遜攤

1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정의현 고적조 : “水山坪 在水山西南高麗忠烈王時元塔羅亦來牧牛馬駱驢羊”

17) 고창석,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111쪽.

18) 김장구, 「康萬益, 13-14세기 탐라목장의 변천과 영향」 논문에 대한 토론문, 『제주-몽골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252쪽. 원대에 있어 愛馬는 宿衛를 담당했던 관원들인 동시에 특수군인층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으며, 특히 여말선초 에마의 신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의 「成衆愛馬考-麗未鮮初 身分階層의 一斷面-」(『東國史學』, 제9·10호, 동국사학회, 1966, 17-36쪽)가 참조된다.

19) 남도영,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 『한국사연구』 4, 1969, 97쪽.

20) 『元史』 兵志 馬政 : “其牧地 東越耽羅 北踰火里禿麻 西至甘肅 南暨雲南等地凡一十四處自上都·大都以至玉你伯牙·折連怯呆兒周廻萬里無非牧地馬之羣或千百或三五十左股烙以官印號大印子馬其印有兵古·貶古·闊卜川·月思古·斡樂等名 牧人曰哈赤·哈刺赤 有千戶·百戶 父子相承任事”

21) 김중직(1465), 「毛羅歌」(其五), 광귀남, 「점필재 약부시에 형성된 풍교의식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46쪽.

22) 愛宕松男, 「元代の都市制度とその起源」, 『東洋史研究』 3-4, 1938, 15-23쪽 ; 고창석, 앞의 책, 2007, 66쪽의 각주 42를 인용함.

(1275)<sup>23)</sup>과 塔刺赤(1276)<sup>24)</sup>이 있었다. 다르가치는 탐라에서 戍卒[鎮守軍] 독려, 목마장 감독, 站赤[jamchi] 설치, 죄수 관리 등을 담당했다.<sup>25)</sup> 특히 塔刺赤은 말과 소, 양, 나귀, 낙타 등 5축을 이용해 탐라목장의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하치들의 거주지역이면서 목장을 관할하기 위한 東·西 아막을 설치했다.<sup>26)</sup> 또한 10여 년간(1276~1287) 목마사업을 번성시켜 탐라 목장을 원 제국 14개 황실목장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켰다.

東·西 아막 내에는 愛馬孳長官·提領 등의 직명을 가진 하치들이 주재했다.<sup>27)</sup> 동아막에는 1276년 8월 탐라의 동부지역에 위치했던 수산평 목장<sup>28)</sup> 그리고 서아막에는 1277년에 서부의 한경면 고산리 해안에 위치했던 ‘차귀평’ 목장이 있었다.<sup>29)</sup> 아막이 동·서로 배치되면서 제주도가 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지역으로 분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입지 형태는 목축에 유리한 환경사의 지형조건과 초지환경이 탐라의 동서지역이 남북지역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동·서 아막으로 구분해 이루어진 목장 운영체제는 고려정부가 1300년 제주목을 중심으로 동·서도를 설치하는 토대가 되었다.<sup>30)</sup>

동아막의 구체적인 지리적 범위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은 수산 서남쪽<sup>31)</sup> 그리고 『동사강목』에는 정의현청에서 동쪽으로 24리 정도에 위치했다<sup>32)</sup>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곳은 현재 어디일까? 수산

23) 『원사』 지원 12년(충렬왕 1년, 1275) 6월 무진조(29일) : “戊辰 以遜攤爲耽羅國 達魯花赤”

24)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1276) 8월조.

25) 고창석, 앞의 책, 2007, 106쪽.

26) 배숙희, 「원나라의 탐라통치와 이주,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제76집, 중국사학회, 2012, 99-109쪽.

27) 고창석, 앞의 책, 2007, 112쪽.

28)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2년 8월조 : “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以馬百六十四匹來牧”

29) 이원진(1653), 『탐라지』 건치연혁조 : “三年丁丑元立東西幕放牛馬”

30) 이원진(1653), 『탐라지』 건치연혁조 : “二十六年庚子設東西道縣” ; 『東國輿地勝覽』 旌義縣 建置沿革條에 의하면 충렬왕 26년에 東·西道縣이 설치되고, 그뒤 태종 16년에 東道縣은 旌義縣, 西道縣은 大靜縣으로 각각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정의현 고적조 : “水山坪 在水山西南高麗忠烈王時元塔羅赤來牧牛馬駱驢羊”



평은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을 수산리로 들어오는 초입부로, 수산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수산도” 또는 “수산도버력들”(수산2리 4752임야 일대)이라고 부른다. 동아막 지역에는 城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목호의 난 때 “동도의 합적 石多時萬과 趙莊忽古孫 등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성에 의거하여 항복하지 않았다”<sup>33)</sup>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수산평에는 좌보미오름과 궁대오름 그리고 뚝굽으니오름이 위치하며, 이곳은 오름들이 북동풍과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따뜻한 장소가 되어 겨울철 말 방목에 유리한 곳이었다.



그림 3. 1700년대 「조선강역총도」에 나타난 수산평 탐라목장 터

수산평 탐라목장은 「조선강역총도」(1700년대 전반)에 그 위치를 남겼다(그림 1). 이에 따르면, 수산평은 앞서 제시한 내륙지역이 아니라 해안에 위치했던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바다에 있어야 할 성산이 육지 내에 위치하여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나 수

32) 『동사강목』 을해 충렬왕 원년(1275) : “八月 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元以耽羅房星分野 以馬百六十四匹及字駱驢羊 來放于水山坪 水山在今旌義顯東二十四里 耽羅海通倭國 故元人警備之嚴 同於合浦矣”

33) 『고려사』 권113(열전26) 崔瑩傳 : “東道哈赤 石多時萬 趙莊忽古孫 等 猶率數百人 據城不下”



산평의 위치를 지도상에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원 제국이 목장 터로 수산평 일대를 처음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이곳은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둘째, 넓은 용원평원(완사면)과 초지대가 발달해 있으며, 셋째, 겨울철 偏北風을 막아주는 오름(측화산)들이 군집해 있어 온화한 장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4)</sup>

서아막 지역에도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탐라지초본』(秋·冬)의 “고려말 원의 합적이 성을 쌓았는데, 말을 기르기 위한 곳이다. 합적이 패망한 후, 이원진 목사가 장계를 올려 진을 설치하고(1652) 여수를 두었다”<sup>35)</sup>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원나라 합적이 성을 쌓았다 [元哈赤築城]는 것은 조선시대 차귀진성 설치 이전에 이미 합적이 세운 성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서아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서아막이 한경면 차귀(지금의 고산리 七田洞을 중심으로 한 ‘맨처남밭’과 ‘허문밭’ 일대)에 설치-모동장의 시원-됨에 따라 원의 목호인 합적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칠전동(일곱돌)을 중심으로 목마 취락을 형성하고, 목장을 관리하면서 생활하였다.<sup>36)</sup>

서아막이 어디에 해당했는지를 입증하는 사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귀진성의 일부가 남아있는 장소가 한경면 고산리이고, 이곳에 소규모 완경사지(주민들은 “자구내 벵디”라고 부름)가 있음을 고려하여 “고산평”이라고 명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산평”이라는 용어 대신에 “차귀평[遮故坪]”을 제안한다. 이것은 “고산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사료는 없으나 “차귀평”이라는 용어가 고지도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그림 2). 다시 말하면, “고산평”이 지리적인 용어라면 “차귀평”은 역사적 용어라 할 수 있다. 「탐라지도병서」(1709)에는 遮故戶 일대에 “遮故坪代”라는 지명을 분명히 나

34)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74, 37쪽.

35) 이원조(1841-1843), 『탐라지초본』(추·동) 차귀진조 : “高麗末 元哈赤築城 以爲養馬之所 哈赤敗亡後 牧使李元鎮狀 請設鎮旅帥”

36)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제주고산향토지』, 태화인쇄사, 2000, 250쪽.

타나 있다. 坪代는 제주어로 “벵디”라 하며, 완만한 평탄지를 의미한다.



그림 4. 「탐라지도병서」(1709)에 나타난 차귀평대와 모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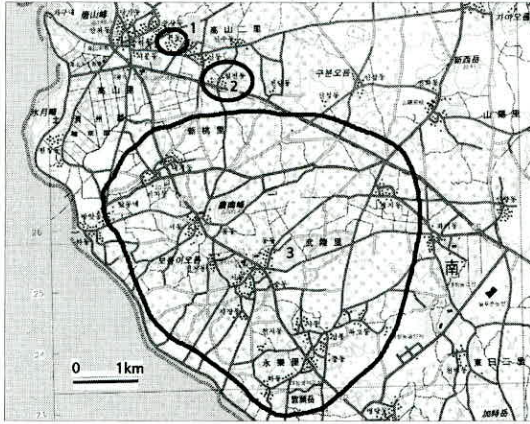


그림 5. 차귀진성과 모동장터  
(1:50,000. 1. 차귀진성 2. 몽골인 부락인 칠전동 3. 모동장)

<그림 3>은 차귀진성터(1)와 몽골인 부락인 칠전동(2) 그리고 조선 시대 소를 전문적으로 길렀던 모동장(3)을 보여준다. 그러면 서아막 목장은 모동장의 시원이 되었을까? 서아막 목장 터에는 조선시대 대정현 소속의 차귀소가 관리했던 ‘別·玄’ 목장이 있었음이 『탐라순력도』(1703)와 『남환박물』(1704)에서 확인된다. 서아막 목장의 일부를 먼저 계승한 것이 조선시대 ‘別·玄’ 字牧場이었으며, 이 후 이 목장들은 숙종 31년(1705)에 소를 길렀던 毛洞場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즉, 원 제국의 서아막 지역 차귀평 탐라목장에서 모동장이 출발한 것이었다.

## 2. 성장기(1278-1351)

탐라목장이 설치된 후 원 제국은 耽羅(國軍民)按撫司, 耽羅總管府, 耽羅軍民萬戶府, 耽羅國軍民按撫使로 하여금 목장을 운영하게 했다. 원 제국이 탐라로 파견했던 다루가치와 원 관부 및 관원들의 변동실태는 <표 1>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다루가치와 관리들은 탐라민으로부터 공물을 받아 자국으로 운송하거나 탐라목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했다.

<표 1> 원대 탐라에 설치된 관부명칭과 관원명

년대	관부	관직과 관원명	비고	출처
世祖至元 10년(1273)	耽羅國招討司	昭勇大將軍(正3品) 초토사 失里伯	오지 않음	譯註元高麗紀事
		초토부사 尹邦寶	漢族	
지원12년 (1275)	耽羅(軍民都達魯花 赤)總管府	다루가치 孫攤	임직 불명확	元史권63, 지리지6
지원13년 (1276) 8월		다루가치 搭刺赤(來)	失里伯 아들	高麗史권28, 충렬왕세가
지원21년 (1284)	耽羅(國軍 民)按撫司	다루가치 塔刺赤(來)	失里伯 아들	元史세조본기 10
		按撫使 忽都塔兒		元史권208, 탐라전
지원24년 (1287)11월		다루가치 塔刺兒(來)		高麗史권30, 충렬왕13년

37)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2015, 416쪽.



지원29년 (1292) 3월		우승 阿撒來)	다루가치의 문책차 래도	高麗史권30, 충렬왕19년
지원30년 (1293) 9월		다루가치 塔刺兒(去)	交趾로 유배	
		다루가치 阿撒(임명)		
成宗元貞2 년(1296)		斷事官 木兀赤(임명)	목축전담	高麗史권31, 충렬왕22
成宗大德4 년(1300)	耽羅總管府			高麗史권31, 충렬왕 27년
成宗大德5 년(1301)	耽羅軍民萬 戶府(耽羅軍 民總管府)		정동행성소속	元史권63, 지리지6
		萬戶 李莊	泰安李氏의 시조	
至大원년 (1308)		다루가치		
불명		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理 上護軍, 다루가치 朴景亮	고려인	
惠宗元統 원년(1333) 12월	耽羅國 軍民按撫使	다루가치 奴列你他來)	塔刺赤의 아들	元史권38, 순제본기
惠宗至正 22년(1362)	耽羅萬戶府	(副樞) 文阿旦不花 整治事에 임명됨		탐라지 권1

출처 : 배숙희(2012 : 106-107), 고창석(1998), 장동익(2001), 이종수(2013).

탐라목장의 성장기에는 첫째, 목축을 전담하는 관리로 단사관이 파견되었고, 둘째, 목장운영이 일정 궤도에 진입하면서 원 제국으로 탐라목장에서 생산된 말 반출이 진행되었다. 또한 셋째, 1300년에는 원의 황태후가 남긴 우수한 말들이 바다 건너 탐라목장에 방목되면서 탐라목장의 위상이 점차 높아졌다. 성장기를 이끈 다루가치는 탐라목장을 설치했던 搭刺赤과 搭刺兒 등이었다. 이 시기에는 원제국이 탐라에서 목축사업을 전담시키기 위해 斷事官[자르구치]으로 木兀赤[무구치]을 파견했다.<sup>38)</sup> 이것은 원 제국이 탐라목장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해석된다. 단사관은 본래 원 제국 초기에 정복지 등에 대한 刑政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으로,<sup>39)</sup> 이후 행정과 군사, 錢穀과 驛傳 사무를 취급했다.<sup>40)</sup>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토산조.

39) 여원관계사연구팀, 『譯註 원고려기사』, 선인출판사, 2008, 167쪽.

탐라목장이 성장함에 따라 원 제국은 1300년에 탐라총관부를 일시적으로 부활시키고, 사망한 원 제국 유성 황후의 廐馬를 수산평 탐라목장에 방목시켰다. 그런데 원 제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탐라목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공마부실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탐라목장 개선방안이라는 견해가 있다.<sup>41)</sup>

원이 탐라목장을 설치한 후, 자국으로의 우마 반출은 1295년부터 1298년까지 이어지다가 20여년이 경과한 1324년에 비로소 재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 제국이 1300년에 탐라총관부를 일시 부활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제국이 공마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라목장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원 황후의 구마를 방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원 제국의 14개 황실목장 가운데 바다를 건너 멀리 위치한 탐라목장을 선택해 황태후의 구마를 배로 운송하는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방목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원 제국이 탐라목장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는 이개석(2014)의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1300년은 탐라목장의 성장기요, 도약의 시기였던 것이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원 제국의 태복시, 선휘원, 중정원, 자정원에 소속된 말들도 방목되었다. 또한 『大元馬政記』(1324)에는 말뿐만 아니라 소도 원나라에 공물로 바치기도 했음<sup>42)</sup> 확인된다.

탐라목장에서 생산된 말들이 얼마나 원 제국으로 반출되었을까? 원 제국으로 말을 보낸 시기는 충렬왕 21년(1295)으로, 탐라목장이 설치된 지 19년이 경과한 때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탐라목장이 탐라에 뿌리를 내렸다고 판단된다. 다만, 1276년부터 1294년 사이에 원 제국이 탐라산 말을 반출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은 일본정벌을 위해 말을 비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sup>43)</sup> 동의한다. 그리고 원 제국에서 탐라에 관리를 직접 보내 말을 반출했다는 기록은 1295년과 1347년 단 2회에

40) 田村實造, 「元朝札魯忽赤考」, 『桑原論叢』, 弘文堂, 1931 ; 고창석, 『탐라국사료집』, 신아문화사, 1995, 102쪽 각주 247에서 인용함.

41) 고창석, 『제주역사연구』, 세림, 2007, 82-86쪽.

42) 『대원마정기』(광창학군총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83쪽 : “泰定元年十月十三日, 太僕卿渾丹寺丞塔海奏:自耽羅起至牛八十三頭”

43)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2000, 298쪽.

불과할<sup>44)</sup> 정도로 매우 적었다. 고려정부에서 원 제국으로 관리를 보내 탐라산 말을 보냈다는 기록도 1296년 1회에 불과하다.<sup>45)</sup>

이상과 같은 기록들은 100여 년 동안 탐라목장이 운영되었음에도 원 제국으로의 반출기록이 매우 적고 또한 비연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원 조정에서 반출했던 말이 실제로 많지 않았거나, 둘째, 당시 원 제국에 보낸 貢馬에 浮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sup>46)</sup> 다시 말하면, 탐라목장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원 제국으로 보낼 만큼 우수한 말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탐라산 말에 대한 수요와 징발의 필요성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탐라에서 원 제국(대도 : 북경)까지는 거리가 멀어 운송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말 반출이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태정 원년(1324)에 탐라에서 소 83두를 뽑아 가져왔으나 이곳의水土에 적응하지 못했다”<sup>47)</sup>는 기록은 원 제국으로 보내졌던 탐라산 소들이 원 제국(북경)의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원의 수도였던 북경은 제주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환경적응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쇠퇴기(1351-1392)

원·명 교체기에 들어서면서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전개하며 원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있었을 때, 탐라에 남아있었던 하치[목호]들은 고려정부가 탐라로 파견한 제주목사와 만호 등을 죽이며 저항했다.<sup>48)</sup> 특히, 1300년대 중반부터 발생했던 목호의 난은 공민왕의 반원 정책과 舊土 수복

44) 『고려사』 권31(세가31), 충렬왕 21년(1295) 3월 : 원나라에서 백침목아를 보내어 탐라에서 말을 골라갔다.

『고려사』 권37(세가37), 충목왕 정해 3년(1347) 무인일 : 원나라 태복사에서 李家奴帖木兒, 安伯顏不花를 보내어 탐라의 말을 가져갔다.

45) 『고려사』 권31(세가31), 충렬왕 22년(1296) 5월 : 대장군 南挺을 원나라에 파견하여 탐라의 말을 헌납하였다.

46) 고창석, 앞의 책, 2007, 124쪽.

47) 『신원사』 병지 마정조.

48)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6년(1367) 2월조.



정책, 제주도의 원나라 귀속문제, 명나라의 마필요구 등에 대항하면서 일어났다.<sup>49)</sup>

목호의 난은 1356년부터 1376년까지 20년 동안 5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가운데 肖古禿不花와 石迭里必思는 1362년과 1374년 두 차례에 걸친 목호의 난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었다.

1374년 명이 고려에 탐라말 2,000필을 요구하자 석질리필사, 초고독 불화, 관음보 등이 “원세조가 양축한 마필을 어찌 명에 헌납할 수 있느냐”<sup>50)</sup>고 항의하며 난을 일으켰다. 이에 공민왕은 崔瑩에게 반란세력을 토벌하라고 명령했다.<sup>51)</sup>

그 결과, 최영의 고려군과 몽골출신 목호군은 명월포, 명월촌(한림읍 명월리), 어름비(애월읍 어음리), 밝은오름, 검은데기오름, 새별오름, 연래(서귀포시 예래동), 홍로(서귀포시 서홍·동홍), 범섬에서 싸움을 전개했다.<sup>52)</sup> 이 싸움터들은 대부분 西道(서아막) 지역에 위치해 서아막 목호군들이 최영의 고려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볼 수 있다.

목호세력의 수뇌부들이 범섬에서 최후를 맞이한 후, 東道 合赤인 石多時萬, 趙莊忽古孫 등이 성에 의지해 반기를 들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결국, 최영이 목호의 난을 평정함으로써 원의 100여년에 걸친 監牧은 사실상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sup>53)</sup> 그 결과, 탐라목장의 말들은 고려의 소유가 되었으나, 1392년 고려가 조선으로 대체되면서 元朝가 제주에 남겼던 탐라목장은 조선국의 소유가 되었다.<sup>54)</sup>

탐라에서 목호의 난이 발생했던 시기에 몽골식 탐라목장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목호세력도 크게 약화되었고, 사실상 몽골인이 운영했던 탐라목장의 목마양육은 황폐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1374년 목호의 난 이후 1380년까지 잔존

49) 고창석,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4호, 1985, 23쪽.

50) 『고려사』 권44(세가44), 공민왕 갑인 23년(1374) 7일(을해).

51) 목호의 난에 대해서는 김일우의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2000, 신서원)와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2005, 서귀포문화원)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52) 『고려사』 권113, 열전, 최영전 ; 『이문』 권2 제주행병도평의사사신조.

53) 진축삼, 앞의 논문, 1989, 150쪽.

54) 에르테니 바타르, 『팍스윈제국리키와 고려』, 해안, 2009, 146쪽.

목호세력들과 탐라의 말들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sup>55)</sup> 이의 근거로 1390년 4월 개경에서 정몽주를 만난 六十奴<sup>56)</sup>의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탐라에는 명나라에 진헌할 마필[양마]이 없었을 정도로<sup>57)</sup> 몽골식 탐라목장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

탐라에서 생산된 말의 명성이 上國[명나라]에 알려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내가 탐라에 있는 지 5~6년이 되었는데 좋은 말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지금 京師로 조회가면서도 예물로 바칠 말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sup>58)</sup>

목호의 난(1374)이 발생한 후 동·서 아막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조선 초인 태종 8년(1408)에 동·서 아막이 혁파되어 감목관으로 변화되었다.<sup>59)</sup> 다시 말하면, 몽골식 아막(여기서는 지역이라는 의미보다 목장관리 책임부서라는 의미가 강하다)이 조선식 감목관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것은 『태종실록』(1408)의 “제주에 監牧官을 두었다. 동·서도에 각각 감목관 두 사람, 鎭撫 네 사람을 두어 방목하는 마필을 고찰하게 하고, 전조 때의 愛馬孳長官·提領의 칭호를 고쳤으니, 본주 도안무사의 아됨을 따른 것이었다.”<sup>60)</sup>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태종에게 장계를 올린 제주도안무사 趙原은 동·서 아막을 폐지하고, 애마자장관을 감목관으로 그리고 제령을 진무로 변경시켰다. 여기서 동·서도에 감목관 4명(동도 2명, 서도 2명)과 진무 8명(동도 4명, 서도 4명)을 배치해 목장을 관리했다는 것은 1300년대 말에는 적어도 8개의 목장이 존재했음을 입증해 준다.<sup>61)</sup>

55) 박원길, 「영락제와 제주도」, 『제주도연구』 40집, 제주학회, 2013, 37쪽.

56) 柏柏太子の 아들로, 1382년부터 1390년까지 탐라로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57) 고창석, 앞의 논문, 1985, 22쪽.

58) 『고려사』 권45, 공양왕 2년(1390) 4월조.

59) 이원진(1653), 『탐라지』: “八年戊子革東西阿幕置監牧官”

60)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1월 3일 임자: “置濟州監牧官 東西道各設監牧官二, 鎭撫四, 考察放牧馬匹, 以革前朝愛馬孳長官提領之號, 從本州都按撫使之啓也”

61) 남도영, 앞의 책, 2003, 169쪽.

1270년대 제주도 동·서부 지역에서 2개로 출발했던 탐라목장이 1300년대 말 8개로 분화되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8개의 목장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10소장의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sup>62)</sup> 즉, 1400년대 제주도 중산간 지대의 국영목장들은 고려 말 탐라목장을 재정비하면서 등장했다고 판단된다.

### Ⅲ. 탐라목장의 영향

탐라목장이 운영되는 동안 몽골식 목축경관(아막, 게르, 유목, 거세와 낙인 등)이 등장했으며, 다양한 몽골의 목축문화가 전파되었다. 또한 탐라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제주에 들어온 몽골인들이 몽골인 마을을 만들었고, 고려열녀정씨비, 元屯場, 원으로 가는 候風處인 포구 등 몽골인 흔적들을 곳곳에 남겼다.

이 장에서는 100년 가까이 탐라목장이 운영되면서 제주지역에 남겨놓은 몽골식 목축문화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 목장을 영하기 위해 탐라로 파견된 하치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흔적인 몽골인 거주지, 나아가 탐라목장과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몽골 목축문화의 유입

탐라목장이 운영되면서 몽골의 목축문화가 제주도에 유입되었다.<sup>63)</sup> 이를 간략히 보면, 첫째, 동·서 아막 지역의 하치들은 말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말의 걸음걸이나 음식까지도 조절했고, 몽골말의 순종을 보전하기 위해 果下馬와의 相亂을 금했던 것으로 알려진다.<sup>64)</sup> 그러면서도 그

62) 조선시대 제주도 중산간 지대 국영목장이었던 10소장의 위치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강만익의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논문, 2001)가 참조된다.

63) 전영준, 「13-14세기 원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의 변화」, 『제주도연구』 40집, 제주학회, 2013, 58쪽.

64) 진축삼, 앞의 논문, 1989, 148쪽.



들은 몽골고원과는 다른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는 목축방식을 고안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치들은 자기의 목축방식을 중심에 두면서도 보완적으로 제주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목축방식을 적절하게 융합시켰을 것이다. 또한 건조한 몽골 다리강가 초원과는 다른 탐라의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목축방식을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탐라목장에서 행해졌을 원제국의 목축방식 적용하기 위한 목축방식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이 『元史』, 『蒙韃備錄』, 『黑韃事略』의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sup>65)</sup>

『元史』 권100, 마정조 : 말떼는 1,000~100마리나 50~30마리로 무리를 지어 방목했다. 왼쪽 엉덩이에 관인을 찍었는데, 이 말들은 ‘큰 관인이 찍힌 말’(大印子馬)이라고 불렀다. 목인을 하치[哈赤] 또는 하라치[哈刺赤]라고 부른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축 일을 이어간다. 여름부터 겨울이 될 때까지 적당한 땅을 택해 풀과 물을 따라 이동하며, 10월에 각자의 본거지에 도달한다. 조정에서는 매해 9월과 10월 寺[太僕寺]에서 관리를 보내 조사하도록 한다.

『元史』 권35, 『文宗紀』 : 방목하는 나라의 말에 해마다 소금을 지급하여 매일 호랑이 날(寅日)에 먹인다. 그러면 말은 건강하고 질병이 없다.

『蒙韃備錄』 : 풀이 푸른가, 시들고 있는가에 따라 말을 들판에 방목시킨다. 결코 콩과 조(와 같은 곡류)를 주는 법이 없다.

『黑韃事略』 : 네 살이 되면 거세를 한다. 따라서 건강하고 힘이 있으며 유순하고 성깔이 없다. 종마는 거세하지 않는다. 말은 대부분 4~5백마리로 한 무리를 이루는데 두 명의 올라치(兀刺赤, 목자)가 담당한다.

셋째, 하치들은 제주에서 종마를 얻기 위해 고려인(탐라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고려인의 목장접근도 금지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풍부한 馴馬 경험을 통해 順從·馴服의 몽골말을 키워 내어 자국에 군사 및 교통도로로 공급했다.<sup>66)</sup> 탐라인의 목장접근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몽골식 목축방식으로 방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목장

65) 박원길,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과 기마장비」, 『‘제주마’ 문화정립을 위한 제주학의 역할』(제3회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제주발전연구원, 2014, 84-86쪽.

66) 에르테니 바타르, 『팍스원제국리카와 고려』, 혜안, 2009, 144-145쪽.

이 점차 성장하면서 탐라의 목축민인 ‘테우리’<sup>67)</sup>들도 목장운영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하치들은 겨울철에 冬營地로 옮겨가 말 떼를 월동시키는 몽골 고원의 전통적 방식 대신에 아막 지역 내로 말을 몰아넣어 미리 준비해 둔 건초를 먹였다.<sup>68)</sup> 아막내 특정장소가 우마들과 하치들이 월동하는 동영지 역할을 했다. 겨울철 건초를 먹였다는 것은 몽골인들이 테우리들의 목축방식을 수용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중산간 지대에도 방목이 이루어졌다.<sup>69)</sup> 이곳의 방목실태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기사(1421)가 참조된다.

제주에는 기르는 말이 많아서 1만여 필에 이른다. 전에 본도는 지역이 따뜻해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다. 이 해에는 추위가 심하고 눈의 깊이가 5~6척에 이르니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sup>70)</sup>

눈의 깊이가 5~6척(1.5~1.8m) 정도 쌓이는 지역은 해안지역이 아니고 중산간 지대(200~600m) 이상이다. 또한 이곳은 한라산 이남이 아니라 북서풍에 의한 지형성 多雪이 발생하는 산북지역의 중산간 지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초기 국영목장이 설치(1430)되기 이전에 이미 중산간에서 말이 방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기록은 조선이 건국한 후 30여년이 경과한 상태의 것으로 고려말 탐라목

67) ‘테우리’라는 용어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박원길은 이 용어를 ‘모오다’는 뜻을 가진 중세 몽골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주장하면서(박원길,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탐라국 독립성 상설 900년 회고』, 사단법인 제주학회, 2005, 72쪽). 테우리를 탐라의 독특한 명칭으로 파악했다(박원길, 『대몽골(원) 제국시대의 양마법과 기마장비』, 『제주마 문화정립을 위한 제주학의 역할』 제3회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2014, 78쪽 각주 13참조). 즉, 고려말 탐라로 파견된 몽골 출신 목축민이었던 하치(Khachi)와는 달리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했던 탐라인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반면, 테우리는 몽골어가 아니라 ‘물테’(말의 무리)를 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순수 제주어라는 주장도 있다.

68) 김일우,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 서귀포문화원, 2005, 211쪽.

69) 김일우, 앞의 책, 2000, 212쪽.

70) 『세종실록』 권14, 세종 3년(1421) 1월 무오조.

장과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1420년대 탐라목장은 운영주체가 변동되었을 뿐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산간 지대의 방목은 탐라목장과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탐라목장은 산북의 중산간 지대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탐라목장은 동부 중산간지대의 수산평, 서부해안의 차귀평 산북지역 중산간 지대, 산남지역 중산간 지대에 분화되어 입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탐라목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제주에는 우마번식이 성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제주인들 스스로 중산간 지역에 방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산간 지대 방목이 탐라의 테우리들보다 몽골의 하치들이 먼저 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여섯째, 하치들은 夏營地와 冬營地 간에 목초가 풍부하게 나는 지역을 찾아 우마 등을 몰고 다니는 유목을 했다.<sup>71)</sup> 그들은 농경과 어로를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목축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하영지와 동영지를 오가는 유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영지는 수산평과 차귀평 목장 내 특정장소, 동영지는 동·서 아막 주거지역 내 장소일 수 있다. 몽골형 유목은 면적이 작은 탐라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시간흐름에 따라 동서아막 주거지를 동영지로 삼아 이루어지는 ‘정착형 방목’으로 변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곱째, 아막에서 하치들은 전마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말을 거세했고 소유주 구별을 위해 낙인을 했다(그림 5). 거세술은 탐라의 테우리들도 행했다. 이것은 1407년의 『태종실록』(1407년 3월 29일)에는 “낙인을 찍은 다음, 거세하는 것을 하락하라”<sup>72)</sup>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거세는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즉, 탐라가 가지고 있는 목초에 비해 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목초부족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말에 대해 거세가 이루어졌다.

탐라인들은 하치들과 접촉하면서 마소의 엉덩이 부위에 낙인찍는 법, 말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세 개의 다리를 묶는 법, 가쁜 숨을 쉬 몰아

71) 김일우, 「제주와 몽골 말 사육의 교류와 접합을 중심으로-제주, 몽골의 국립목장이 들어서다」, 『‘제주마’ 문화정립을 위한 제주학의 역할』(제3회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 제주발전연구원, 2014, 24쪽.

72) 『태종실록』 권13, 태종7년(1407) 3월 29일(계미).



실 수 있게 말의 콧구멍을 찌는 법 등을 배웠다.<sup>73)</sup> <그림 5>는 몽골에서 행해졌던 낙인과 거세 장면을 재현한 그림이다.



그림 6. 몽골의 목축문화인 낙인과 거세 장면

여덟째, 말의 신을 모시는 마조단에서 목축의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몽골의 마조단 터라고 거론되는 유적이 목축의 고장인 남원읍 의귀리에 남아있다. 남원읍 의귀리는 본래 “오끼”로 불리던 마을로, “오끼”의 어원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나 “오끼”가 방목지를 의미하는 몽골식 지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74)</sup> 이 마을에는 원제국의 馬祖祭壇으로 추정되는 ‘積石圓壇’ 터가 있었다고 한다.<sup>75)</sup> 그러나 이것이 원 제국 마조제단인지는 사료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마조단은 馬祖神[房屋]에게 마축 번성을 기원하며 의례를 행하던 제단이었다.<sup>76)</sup>

현재 이 유적은 남원읍 위귀리 1111번지 감골과수원(백산농장) 내에 있으며, 1989년만 해도 큰 돌을 깎아 나선형으로 차곡차곡 원추형 탑으로 쌓아올린 시설물이었다.<sup>77)</sup> 2014년 제민일보 취재팀과 이곳을 답사한

73) 강영봉, 「제주도와 원제국」, 『한·몽교류천년』, 한·몽교류협회, 1996, 30-31쪽.

74)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지』, 2012, 153-154쪽.

75) 김인호, 「千古의 傷痕, 오끼 무너진 연디」, 『관광제주』(1월호), 1990.

76) 김인호, 앞의 책, 2006, 517-518쪽.

77) 김인호(1990)의 조사결과가 『의귀리지』(2012, 153-154)에 실렸다. 조사당시 제단

결과, 대부분 원형을 잃어버려 현재로서는 이 적석원단이 몽골식 마조단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후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 몽골 마조단과의 관련성이 해명되길 기대한다.

## 2. 몽골인의 거주지 등장과 제주정착

원제국은 탐라를 직할지로 삼아 관리들과 죄수들 그리고 탐라목장에 우마를 길렀던 하치들과 그 가족들을 탐라로 보냈다. <표 2>는 원 제국이 탐라로 보낸 관리, 범죄자 그리고 왕족 등을 나타낸다. 이들 가운데 탐라에 와서 정착했던 몽골인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다. 원 제국이 명나라에 의해 멸망한 이후, 탐라에 정착한 몽골인들은 증가했을 것이다.

특히 원 제국이 사실상 붕괴된 후 몽골 황족인 황금씨족(알탄우룩) 집단이 입도하기도 했다.<sup>78)</sup> 『明實錄』에 등장하는 “대개 사람들이 모두 樂土[탐라]에 여러 해 머물러 있었으며, 원나라의 운수가 이미 끝났으니 탐라에 비록 胡人部落이 있어도 이미 고려로부터 명을 받고 있다”<sup>79)</sup>는 기록과 『東史綱目』에 “원나라 때 留鎮과 목마의 일로 원나라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거주한 자가 매우 많았다”<sup>80)</sup>는 기록들을 통해 몽골인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부락들의 소재지는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안지역의 몽골인 마을로는 현재 한경면 고산리(서아막 지역), 서귀포시 예래동·강정동, 호근동(원통), 그리고 중산간 지역의 애월읍 고성리·어음리, 남원읍 의귀리, 표선면 성읍리·가시리 등이 있다.

---

의 기반은 지면에서 6-7m, 제단의 면적은 660㎡, 약 1.5톤 이상의 큰 돌을 이용해 쌓아 올렸다.

78) 허용범, 「몽골과 제주, 7백년을 이어온 초원의 혈맥을 찾아서」, 『월간조선』 10월호, 조선일보사, 1998, 508쪽.

79) 『明實錄』 洪武 5년(공민왕21, 1372) 7월 경오(25일) : “蓋人皆樂土積有年矣 元運既終 耽羅雖有胡人部落 已聽命於高麗”

80) 『東史綱目』, 공민왕 23년(1374) 7월 갑인 : “按元時以留鎮及牧馬 元人來住於濟州者甚多”

〈표 2〉 원나라 주민의 탐라유배 및 이주현황

연도	내용	유배 및 이주민
원 세조 10년(1273)	삼별초 평정(관원, 주둔군)	진수군, 다루가치 파견
원 세조 12년(1275)	원나라 범죄자 1차 유배	도적 1백여명
원 세조 13년(1276)	말 160필 방목	목호파견
원 세조 14년(1277)	원나라 범죄자 2차 유배	죄인 70명 유배
원 세조 19년(1282)	몽골과 한인군사 탐라주둔	1700명
원 인종 04년(1317)	위왕아목가 일행 유배	위왕 아목가 일행
원 순제 06년(1340)	패란해 대양 탐라에 귀양	패란해 대양
명 태조 02년(1369)	원나라 목수 원세(11명) 일행이주	원세 일행(가족포함)
명 태조 15년(1382)	원 왕족 1차 유배	양왕 가숙과 백백태자 일행
명 태조 15년(1382)	원 유민 1차 이주(탐라에 정착)	원 유민(명의 臣民에 반대)
명 태조 15년(1382)	복원 유민 2차 이주	복원 유민(명의 臣民에 반대)
명 태조 21년(1388)	복원 왕족 2차 유배	달달친왕 등 황족 일행
명 태조 25년(1392)	양왕 자손 애안침목아 등 제주안치	애안침목아 일행

출처 : 김경주, 「고고자료로 살려 본 원과 제주」,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164쪽.

해안지역에 자리 잡은 몽골인 마을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예래동이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본관이 ‘大元’이라고 표기했던 眞氏와 姜氏들이 오늘날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sup>81)</sup> 목호의 난 때 최영 군대에 밀리던 목호 군대가 싸움을 벌였던 곳이었다. 몽골 출신 로알 휘밀리의 거주지가 古예래현(1300~1416)이라는 주장도 제시되었다.<sup>82)</sup> 한경면 고산리(칠전동 포함)는 서야막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몽골인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귀포시 서흥·동흥동(흥로), 대궐 터가 있었다는 강정 마을도<sup>83)</sup> 몽골인

81) 본관을 ‘大元’이라고 표기한 몽골인의 존재양상은 김동전의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 호적증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호, 2010, 역사문화학회)이 참조된다.

82) 오영주, 「탐라와 몽골 음식문화의 만남」, 『동북아 유목문화와 제주문화의 정체성』,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2013, 90쪽.

83) 2015년 제주 강정동 대궐터 발굴조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나온 원대의 주축 돌 등 유물에 근거해 강정동 대궐터가 몽골황제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김일우, 「제주 강정동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학보』 60, 2016, 고려사학회). 반면 법화사지 발굴유물을 토대로 순제의 피난궁전



거주지였을 것이다.

서귀포시 호근동 850-7 일대에 자리한 ‘원통’ 역시 몽골인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탐라지도병서』(1709)에 ‘元通’이라는 지명으로 등장했다. 원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 탐라인들이 “원통”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에서는 말들이 모이는 곳을 “馬通”이라고 부르는 용례가 있어 ‘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어떤 무리들이 있는 집단을 의미하므로 원통 역시 원나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장소였다고 해석한다.

『탐라지』(1653)에 의하면, 조선시대 원통은 정의현에서 서쪽으로 65리에 있었으며, 과원이 설치되어 있었다.<sup>84)</sup> 현재 원통은 서귀포시 호근동 850-7<sup>85)</sup> 일대로 일컬어지나, 현장조사 결과 호근동 723번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통 과원 터에는 현재도 감귤 과수원과 물통이 남아있어 조선시대 果園을 계승하고 있다.<sup>86)</sup>

元通을 현재의 지형도에서 그 위치를 비정하면, 호근천(숨반내, 서홍천의 지류에 해당)의 두 개 지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하천은 서귀포항으로 바로 직결된다. 이 포구는 원나라로 가던 배들의 候風處였기 때문에 하치들과 몽골 출신 관리들 및 그들의 가족들이 배로 서귀포에 내린 다음, 육로로 이동해 이곳에 정착했을 것이다.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은 몽골인 마을로는 애월읍 고성리, 표선면 성읍리와 성산읍 수산리가 대표적이다. 애월읍 고성리는 향파두리 성이 남아있는 마을로, 향파두리 성 내에서 원나라의 생활유물들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sup>87)</sup> 이 성내에서 몽골인들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성산읍 수산

은 강정동 대밭터가 아니라 하원동에 위치한 범화사지 내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김경주, 「고고자료로 살펴 본 원과 제주」,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회 한·몽 국제학술대회발표자료집』, 2016, 151-178쪽).

84) 이원진(1653), 『탐라지』 정의현 과원조 : 원통은 정의현 서쪽 65리에 위치하며, 유자 119주, 산귤 4주, 당유자 2주, 새로 심은 각종 과수 20주, 치자 12주, 칠나무 16주가 있었다.

85) 서귀포시편, 『서귀포시 지명유래집』, 1999, 327쪽.

86) 정미정, 「조선시대 제주과원 설치와 감귤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 논문, 2006, 66-67쪽.

87) 제주도,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1998, 123쪽.



리는 동아막의 운영과 관련한 하치들이 살았던 마을이었다.<sup>88)</sup>



그림 7. 동·서 아막 지역 내 탐라목장 터와 몽골 부락 추정지 위치(※그림은 필자작성, 14개 현촌 이름은 이원진의 『탐라지』에 근거함. 토산현은 『탐라지』에는 등장하지 않았음.)

표선면 성읍리에도 몽골인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마을의 본래 이름은 썬숨리로, 현재 성읍 1리 성읍민속촌에 해당하며, 동쪽 인근에 수산평 탐라목장이 위치해 이 목장을 관리했던 하치들이 이 마을에 거주했을 것이다.

‘구렁팻’은 성읍 2리 구룡동으로, 말을 생산했던 하치들의 집단 거주지였을 가능성이 점차 지고 있다. 이곳은 비치미 오름과 개오름이 북서풍을 막아주고, 주변에 넓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명마산지로 유명했다. 특히 이 마을에서 산출되는 말은 ‘구렁팻말’이라 하여 제주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 이곳은 양질의 수초가 풍부한 지리적 여건을 구비한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명마산지로 유명해진 것은 전통적인 특유의 조련술이 있었기 때문인데, 구렁팻 말은 하루 종일 타고 달려도 지칠 줄을 모르며, 타고 있던 사람도 몸과 마음이 편하다고 알려졌다.<sup>89)</sup>

이상과 같은 몽골인 마을들의 추정지는 <그림 5>에서 확인된다. 이 지도는 1300년 시점의 14개 현촌과 몽골인들이 탐라에 거주하며 남긴 흔적들을 보여준다. 이 현촌들은 外官 파견이 없었던 屬縣들로, 1 현당

88) 제주문화예술재단·남제주군, 『수산 빌라리왓 유적』, 2006, 14쪽.

89)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하)』, 서귀포문화원, 2006, 540-543쪽.

평균 500명 이하의 인구를 가졌으며, 1개의 속현은 평균 100인 정도의 인구를 가진 3~4개의 촌락들로 구성되고 있었다.<sup>90)</sup>

동도보다는 서도지역에 현촌이 다수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서도지역에 농경과 어업 등 유리한 자연조건이 구비되면서 인구부양력이 높아져 많은 현촌이 분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도지역에 원 제국의 탐라지배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향과두리 성이<sup>91)</sup> 존재했던 것도 현촌 분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목축지 면적은 동도지역이 서도지역보다 넓어 그 결과 촌락분포가 서도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몽골인은 탐라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탐라인과 혼인관계를 형성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유물중 하나인 고려 열녀정씨비를 들 수 있다.<sup>92)</sup> 이 비에 나타난 제주여인 정씨의 남편 석곡리보개는 목호의 난(합적의 난)에 참전했던 몽골인이었다(그림 6).

고려 열녀정씨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에도 등장한다. 열녀정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으로, 여기에는 “정의 직원 石阿甫里介의 아내 無命은 나이 스물에 시집갔다가 9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고 부모와 노예가 없었으나 곤궁과 기아를 달게 여겼다. 칭혼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끝내 절조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다.<sup>93)</sup> 남편이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石那里甫介’,<sup>94)</sup> 『탐라지』에 ‘石邦里甫介’,<sup>95)</sup> 한응호가 세운 열녀정씨비에 ‘石谷里甫介’<sup>96)</sup>

90) 진영일, 『고대중세제주역사탐색』, 보고사, 2008, 266-267쪽.

91) 이개석, 앞의 책, 2014, 328쪽.

92) 비의 앞면 : 烈女鄭氏之碑高麗石谷里甫介之妻哈赤之亂其夫死鄭年少無子有姿色安撫使軍官強欲娶之鄭以死自誓引刀欲自刎竟不得娶至老不嫁事, 뒷면 : 到處見聞重修古跡莫非其惠且矜無后牧使韓公特下後振改造石碑道光十四年三月日이라 되어 있다.

93) 『세종실록』 권42, 세종10년(1428), 10월 병오조.

94)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38, 정의현 열녀조.

95) 이원진(1653), 『탐라지』, 정의현 열녀조.

96) 필자는 2015년 공저로 발간한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경인문화사, 41쪽)에서 정씨의 남편이름을 石谷里的 甫介로 보고, 석곡리를 마을 이름으로 간주했다. 이 판단은 오승언의 『한남리의 유래』(남원읍 한남리, 『내故鄉 漢南里』, 2008, 34-37쪽)에 근거했다. 그러나 이후 석곡리보개는 석곡리에 사는 보개가 아니라 석곡리보개 자체가 몽골식 이름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이 글에서 2015년의 책 41쪽

(1834)로 달리 나타나 있다. 본래의 남편이름이었던 ‘石阿甫里介’가 후대로 가면서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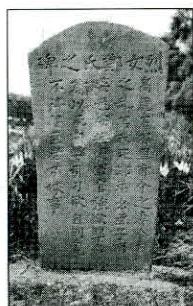


그림 6. 고려  
열녀정씨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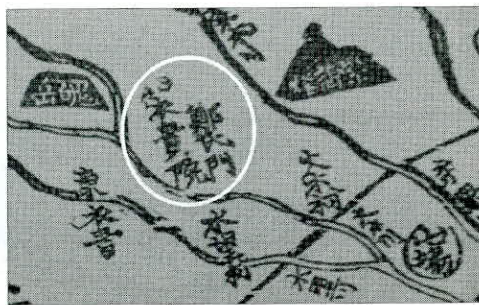


그림 7. 의귀원과 정씨문 위치(1709)

열녀정씨비는 현재 남원읍 의귀리와 바로 이웃한 한남리에 있다. 그러나 1709년 당시만 해도 이 비는 현재의 한남리가 아니라 의귀리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비는 본래 열녀문 형태로 있었으며, 이규성 제주목사가 제작한 『탐라지도』(1709)를 통해 그 위치를 입증할 수 있다. 즉, 이 지도의 정의현 영역 내에 위치한 ‘衣貴院’에 ‘鄭氏門’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7). 과거 남원읍 의귀리 ‘정비못’(못거리)에 있었으나,<sup>97)</sup> 인접한 한남리 마을로 옮겨져 보호되고 있다. 이 비를 통해 현재의 남원읍 의귀리 마을에 몽골인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인은 제주인들과 함께 같은 마을에 거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편의 신분이 職員이고, 의귀리가 동아막 인근에 위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남편은 동아막 소속 하치이면서 목장 관리자 가운데 한명이었을 것이다.<sup>98)</sup>

에 나타난 남편이름을 石谷里甫介로 수정함을 밝힌다. 석곡리는 사람이름의 일부이지 마을명칭이 아니다.

97) 바드만양보 어윤만다하, 「제주 몽골유적의 건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2, 48쪽.

98) 고려후기 제주지역에 거주했던 몽골인과 제주여인의 혼인에 대해서는 김일우의 연구(「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53-56쪽)가 참조된다.







시조로 알려진 좌형소는 중국 산둥성 靑州에 본관을 두고 원나라에서 天官侍郎의 벼슬을 지낸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sup>99)</sup> 靑州左氏 족보에는 그가 충렬왕 초기에 “원나라 天官侍郎으로 탐라 목마장의 감목관으로 부임하여 정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좌형소는 중국식 성씨를 소유한 채 탐라로 들어왔으며, 중국 산둥성 靑州에 본관을 두고, 원나라에서 天官侍郎의 벼슬을 지낸 인물로 알려져 순수 몽골족이라기보다는 한족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과연 탐라에 감목관으로 부임했는지도 의문이다. 감목관은 조선 초기에 등장한 관직명이기 때문이다.

좌자이는 좌형소의 아들로,<sup>100)</sup> 고려 왕후의 중병을 완쾌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안 일대의 토지를 하사 받았는데, 이곳을 좌가장으로 불렀다고 한다.<sup>101)</sup> 「탐라지도병서」(1709)에는 고려말 좌가장이 左哥馬場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즉, 해안에서 말을 키우는 목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포구이름도 左哥馬浦로 되어 있다. 18세기에 작성된 「전라남북도여지도」(1700년대)에는 좌가장 터에 ‘地·玄·宇·宙·出 屯馬’ 그리고 「호남전도」(1700년대)에는 ‘地·玄·宇·宙·出 五字屯牧場’라고 표시되어 있어 적어도 1700년대에는 국마방목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 4. 탐라와 원 제국의 소통로, 對元浦口

탐라와 원 제국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육로와 해로가 이용되었다. 그런데 육로는 탐라와 원 제국간의 공간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해로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다. 반면 해상로는 탐라와 원 제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정해현을 연결하는 남방항로와 탐라에서 출발, 서해안을 통과해 원 제국으로 가는 해로가 있었다.

해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해당하는 포구가

99) 구좌읍 한동리, 『둔지오름-한동리지』, 경신인쇄사, 1997, 66-67쪽.

100) 좌형소의 묘지는 구좌읍 덕천리 산103-2, 좌자이의 묘지는 구좌읍 한동리 146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01) 『충청일보』(2012.11.8), 「충북의 성씨를 찾아서」(35) 청주좌씨(靑州左氏).

필요했다. 그러면 당시 탐라와 원 제국을 연결했던 포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sup>102)</sup> 당시 對元浦口로는 명월포, 당포(대평리), 서귀포 등이 사료에 등장한다.<sup>103)</sup> 明月浦의 현재 위치에 대해 『명월향토지』(2003)에는 한림읍 옹포리 독개 포구와 한림 1리 말 머릿개(마두포) 사이에 있었던 포구로 비정했다.<sup>104)</sup> 「청구도」(1834)에서 명월포는 차귀소와 명월포소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명월포는 현재의 마두포라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탐라지』(1653)에 “명월포는 제주목관아에서 서쪽으로 60리, 옹포는 61리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sup>105)</sup> 옹포와 명월포는 서로 다른 포구가 되어버리므로 결국 명월포는 마두포라는 것이다. 현재 마두포는 한림천 하구에 위치한 ‘옹덩개’와 ‘뱃옹덩개’를 지칭한다.<sup>106)</sup>

그런데 명월포의 위치에 대해 마두포로 보는 설과<sup>107)</sup> 옹포로 보는 설<sup>108)</sup>이 대립하고 있다. 명월포와 옹포는 그 위치가 다르다는 『탐라지』(1653)의 기록에 따를 경우, 명월포는 자연스럽게 마두포가 된다. 그러나 만일 『탐라지』의 기록이 오류라면, 옹포가 곧 명월포일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제주지역 사회에서 명월포가 옹포인지 아니면 마두포(한림향)인지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못한 상태이다.

명월포는 탐라가 원나라로 조공할 때 옹포해안은 수심이 낮아 큰 배들의 정박이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마두포는 수심이 깊어 큰 배들의 정박이 유리했다는 점에서 명월포는 마두포일 가능성이 높다. 이용했던 포구로<sup>109)</sup>, 명월포에서 순풍을 만나면 直路로 7일 밤낮으로 가면서 흰 바다[白海 : 이어도해, 필자주]를 지나면,<sup>110)</sup>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

102) 이에 대해 배숙희의 「원대 경원지역과 남방항로-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중국학보』 제65집, 2012, 185-205)가 참조된다.

103) 진축삼, 앞의 논문, 1989, 146쪽.

104) 한림읍 명월리, 『명월향토지』, 2003, 127-129쪽.

10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산천조.

106) 고광민, 『제주도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74-176쪽.

107) 고광민, 위의 책, 2003, 174-176쪽.

108) 김일우·문소연, 『제주, 몽골을 만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59쪽 ; 문영택, 「마대기(馬待機)빌레를 아시나요」, 『한라일보』(2014년 3월 13일자).

109) 이원진(1653), 『탐라지』, 제주목 산천조.

다. 홍무 6년(1373)에 金甲雨가 8월 24일 명월포를 떠나 9월 10일 원나라 명주부 정해현에 도착했다는 기록을<sup>111)</sup> 통해 명월포와 정해현간 선박왕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에 나타난 당포와 주변 목장지대  
(1. 당포 2. 예래 3. 호도 4. 차귀 5. 별현장 6. 우자장 7. 현자장 8. 황자장  
9. 하정성. 10. 정의현과 대정현 경계선)

西歸浦와 唐浦 역시 對元 포구로 이용되었다. 서귀포는 홍로천에서 바람을 기다려 원으로 출발하던 포구였다. 서귀포는 정의현 서쪽 홍로천(솜반천) 하류에 있었으며, 원나라에 가는 배들의 승풍처였다.<sup>112)</sup> 당포는 안덕면 대평리 포구로,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에 ‘당포’라는 포구명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포구로 연결된 길을 ‘물길’<sup>113)</sup>이라고 했다.

<그림 9>는 1703년 당시의 당포와 인근에 위치했던 목장들을 알려 주고 있다. 예래, 호도, 차귀, 별·현장은 모두 목호의 난과 관련된 장소에 해당한다. 차귀는 서야막의 본거지 부근이며, 조선시대 별·현 목장은

110) 崔溥(1488), 서인범 역, 『표해록』, 한길사, 2004, 61쪽.

111) 未松保和, 『吏文』, 권2, 조선인쇄주식회사, 1942.

112) 金尙憲(1669년), 『南槎錄』: “西歸浦卽縣西洪爐川下流耽羅朝大元時候風處云”

113) ‘물길’을 貢馬路라고도 한다.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와 창천리의 경계선을 이루는 옛길로, 감산리 동네에서 ‘남반내’를 지나 ‘비접골’을 경유하여 ‘진모르’에 들어선 다음 ‘박수기정’으로 이어지는 길이다(안덕면, 『안덕면지』 마을편, 2006, 459쪽).



고려말 서아막 탐라목장의 일부, 예래와 虎島는 최영의 고려군대와 목호군대가 싸움을 벌인 곳이다. 그렇다면 당포와 예래마을 그리고 조선후기에 설치되었던 우자장, 현자장, 황자장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목마장들은 조선시대에 등장한 字牧場<sup>114)</sup>들로 보이나, 고려 말로 가면 서아막이 관리했던 탐라목장의 일부를 계승하여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서 길러진 말들은 당포를 통해 원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탐라목장의 설치와 운영실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탐색했다. 이 글은 고려말 원이 설치해 운영했던 탐라목장에 대한 試論의 연구이며, 사료 부족으로 인해 논의결과들은 다분히 과감한 추론적 내용이 많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라목장 설치기(1273~1277)에 원제국은 군마생산을 위해 1276년부터 탐라목장을 설치하여 자국에서 가져온 말 160필 등을 수산평 탐라목장에 방목시켰다. 원 제국은 제주도 동·서부 지역에서 목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아막과 서아막을 설치했다. 아막에는 게르[Ger]와 아막을 둘러싼 성이 존재했다. 서아막이 설치된 장소는 고산리에 설치되었던 차귀진 일대를 지칭하는 ‘차귀평’으로 비정한다.

원제국은 탐라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루가치와 목축전문가 집단이었던 하치를 파견했다. 특히 다루가치였던 搭刺赤은 탐라목장과 동·서 아막 설치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정벌을 앞둔 정치상황과 탐라목장의 기초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 제국으로 말 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1295년에 원 제국은 관리를 보내 탐라에서 말을 반출해갔다. 이것은 탐라목장 운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원 조정에서 목장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의

114) 字牧場은 屯馬를 千字文의 특정 글자를 이용해 낙인한 후 편성하여 만든 소규모 목장으로 所場에 소속되었다(강만익, 앞의 논문, 2001, 10쪽).



조치로 보인다.

둘째, 탐라목장 성장기(1278~1351)에 원제국은 1296년 탐라목장의 말 생산을 전담시키기 위해 단사관을 파견했다. 1300년에는 원 황후의 구마를 수산평 탐라목장에 방목했고, 탐라총관부를 일시 부활시키는 등 목장운영에 적극성을 보였다.

셋째, 탐라목장 쇠퇴기(1352~1392)에 공민왕이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 반원 정책을 전개하고, 명나라가 고려에 탐라마 2,000필을 요구하자 목호들이 반발하면서 반란을 일으킴에 따라 최영장군에게 탐라정벌을 명했다. 최영에 의해 목호의 난이 진압되면서 탐라목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원 제국으로 말 반출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목장운영의 부실화를 반영한다.

넷째, 탐라목장이 운영되면서 몽골 목축문화가 제주로 전파되었다. 하치들은 탐라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탐라인의 목장접근을 차단하면서 몽골식으로 목축을 했으며, 우마에 거세와 낙인을 했다. 목장설치 초기에는 하영지와 동영지를 왕복하는 유목을 행하다 점차 제주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정착형 방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치나 몽골관리, 죄수들이 탐라로 들어오면서 몽골인 부락이 형성되었다. 서귀포시 예래동, 표선면 성읍1리(진사리), 성읍 2리 구렁팻, 원통과 수산리, 고산리 등은 몽골인 부락으로 보인다. 고려 열녀정씨비는 목호의 난과 관련된 비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원제국으로 공물을 반출하기 위해서 唐浦(현재 안덕면 대평리), 明月浦, 西歸浦 등이 이용되었다.

다섯째, 1430년대부터 제주도에 설치되었던 중산간 지대 국영목장 등은 원 제국이 운영했던 탐라목장을 계승했다고 판단된다. 목축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원 제국 하치들이 탐라에 남겨놓았던 목축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원 제국의 탐라목장과 조선시대 제주지역 국마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그리고 제주와 몽골의 100년 문화교류사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  
육전공 교육학석사논문, 2001.
-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탐라문화학술총서 18), 제주대학  
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 고광민, 『제주도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고창석,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목호란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4호, 탐라문  
화연구소, 1985.
-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기주 몽골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 호적중초에 보  
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호, 역사  
문화학회, 2010.
- 김경주, 「고고자료로 살려 본 원과 제주」,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하)』, 서귀포문화원, 2006.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2000.
- \_\_\_\_\_, 「고려시대 탐라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78호, 한국사학회, 2005.
- 김혜우·고시홍 엮음, 『고려사탐라록』, 제주문화, 1994.
-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2003.
- 배숙희, 「원대 경원지역과 남방항로」, 『중국학보』 제65집, 2012.
- \_\_\_\_\_, 「원나라의 탐라통치와 이주,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제76집, 중국  
사학회, 2012.
- 여원관계사연구팀, 『역주 원고려기사』, 선인출판사, 2008.
- 에르데니 바타르, 「원·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6.
-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연구』, 지식산업사, 2014.
- 이원진, 『탐라지』, 1653.
- 조 원, 「쿠빌라이의 동아시아 해상진출과 탐라」,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 진영일, 『고대중세제주역사탐색』, 보고서, 2008.
- 진축삼, 「몽원과 제주마」, 『탐라문화』 제8호, 탐라문화연구소, 1989.

## Abstract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nfluence of the  
Tamra Ranch in the late Goryeo Dynasty

Kang, Man Ik\*

This paper sheds light on actual conditions and influence of the Tamra Ranch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at was established by Mongol Empire. In 1273, the Mongol Empire(the Yuan Dynasty) suppressed the Sambyeolcho[三別抄] army in collaboration with the Goryeo Army in in Jeju Island. Khubilai Khan of the Mongol Empire, who put Tamra under the direct control, established a ranch in Tamra to produce military horses in August 1276. The ranch,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amra, was operated by the Tarachi designated by the Darughachi of Tamra with 160 horses and the dispatched stock farmers(Khachi).

The Tamra Ranch[耽羅牧場] was separately located in Susanpyeong[水山坪] in the Eastern area of Jeju in 1276 and in Chagwipyeeong[遮歸坪] in the Western area in 1277. Establishment of the Tamra Ranch by the Mongol Empire was the signal to inform the journey of conquest and domination over the pasturelands in Jeju Island. The Mongol Empire built the Eastern Aimaq[阿幕] and the Western Aimaq to systematically operate the ranch. The Aimaqs served as a headquarters to manage the ranch, and Gers and castles were within the Aimaqs.

---

\* Teacher, Jejungang Girls High School.



The Mongol Empire did not take out horses from Tamra to the Mongol Empire at the beginning of the ranch, since the empire was planning to conquer Japan. The Mongol Empire started to take out horses from Tamra via the government officials in 1292. This was aimed to check whether the Tamra Ranch was operated in a stable manner and examine the ranch operation system.

The Mongol Empire dispatched the Jarguchies[斷事官] to Tamra to operate the ranch in 1296. The Mongol Empire put the horses of the stable owned by the deceased empress to pasture in the ranch in Tamra in 1300, and actively operated the ranch by temporarily reviving the Tamlachonggwanbu[耽羅總管府].

As King Gongmin developed the policies against Mongol in the 1350s and the Ming Dynasty requested 200 horses in Tamra to Goryeo, Karachies staged a revolt.

With the revolt, known as the 'revolt of Mongol malchin', King Gongmin ordered General Choi Young[崔瑩] to conquer the Mongol malchin[牧胡] to eradicate the Mongol forces.

As the main military force of Mongol malchin in Tamra was collapsed by General Choi Young's Goryeo troops in 1374, the Mongol malchin, who ran the ranch in Tamra, were hit hard, whereby the Tamra ranch started to be declined. With the operation of the Tamra Ranch, the Mongolian's village was formed for the Mongolian officials, Khachies and prisoners and the culture of stock-farming was spread to the Tamra society.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Tamra Ranch, it is concluded that Gukmajang[國馬場]-the national ranch of Joseon-Dynasty and Sanmajang[山馬場] established in Jeju Island in the Joseon Dynasty were mostly took over from the Tamra Ranch, which as ran by the Mongol Empire. It is also considered that the methods of stock-farming were rooted in the culture of stock-farming that was spread to Tamra by Mongolian Khachies.

Key words : Sambyeolcho[三別抄], khubilai khan, Tarachi, Tamra-Ranch[耽羅牧場], Susanpyeong[水山坪], Aimaq[阿慕], Tamlachonggwanbu[耽羅總管府], Darughachi, Jarguchi[斷事官], Khachi, revolt of Mongol malchin, Mongolian's village.

교신 : 강만익 63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5길 11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E-mail : orum368@empas.com)

논문투고일 2016. 04. 18.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

